

蘇聯과 韓半島

崔 鍾 起*

<차례>	
序論	IV. 蘇聯의 韓半島 政策
I. 東北亞情勢의 概觀	V. 蘇聯新政權의 對外戰略的 意味
II. 蘇聯의 亞細亞 政策	VI. 結語

I. 序論

蘇聯은 第 2 次 世界大戰 終戰一週日前 日本의 敗戰이 짚어지자 對日戰에 參戰, 終戰과 함께 韓半島의 北緯 38度線의 以北을 占領하였으며⁽¹⁾, 1945年 12月 27日 「모스크바」三相會談에 의한 5個年信託統治案⁽²⁾과 美·蘇共同委員會⁽³⁾ 등에서 韓半島問題를 論議하였으나, 別進展을 보지 못하고, 北韓地域에 金日成을 内세워 親蘇政權을樹立하여, 北韓의 사실상의 後見役割을 하여왔다. 이로써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介入은 既定事實化가 되었다.

1950年 北韓의 南韓 侵攻時には 蘇聯의 軍事的인 補給과 指導下에서 武力侵攻이 可能해졌다. 그當時 蘇聯軍 2萬乃至 2萬 5,000名이 北韓國境線 가까이 駐屯, 蘇聯航空機는 中國(共)軍 介入前 까지 鴨綠江鐵橋를 防禦하기 위해 出動하여 北韓을 뒷바침하였다. 中國의

* 서울大 行政大學院 教授.

(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80, p. 20.

露西亞와 日本은 韓半島의 38度線에 의한 分斷에 관하여 1896年과 1903年 論議한 바 있다.

Soon Sung Cho, *Korea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ess, pp. 47-50.

(2) 戰後 韓半島에 대한 美國政策은 信託統治를 통하여, 어느程度 獨立의 基礎가 잡히도록 한다는 方針하에, 1943年 「후랑크린 루즈벨트」 美國大統領은 韓國에 대한 30年間의 信託統治案을 구상한 바 있고, 「모스크바」 三相會談에서는 美國側이 10年間의 信託統治案을 내걸었고, 蘇聯側은 5~11年期間을 主張, 結局 5個年以内로 合意하여,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美·蘇共同委員會가 1946年 1月 서울서 開催된 바 있었으나, 이렇다할 合意에 이르지 못하였다.

(3) Se Jin Kim, ed., *Korea-American Relations, 1943~1976*,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pp. 30-31.

Clae-Jin Lee and Hideo Sato,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 Praeger, New York, 1952, p. 6.

義勇軍(volunteers)이 韓國戰에介入한 후에도 「모스크바」는 自體의 指導的인 役割을 最大限으로 계속하였다.⁽⁴⁾

韓國戰의 休戰 후 1954年 「제네바」에서 개최된 會談에서 蘇聯도 韓國問題解決論議에 參加하여, 休戰線이 現在와 같이 固定化에 이르도록 決定하는데 그 一翼을 담당하였다.⁽⁵⁾

蘇聯은 韓國의 國際聯合加入案(S/1305)에 관하여도 몇차례 拒否權을 行使하므로써⁽⁶⁾ 韓國의 國際聯合加入의 實現을 挫折시켜 왔다.

韓國은 政府樹立以來 自由民主主義를 標榜하여 反共을 國是로 하는 關係로 蘇聯등 共產圈과의 交流는 危險視하여 왔고, 蘇聯과는 아직 外交關係가 없었으며, 1970年代에 접어들어 國際環境의 變化에 適應할 必要性이 있다고 判斷한 故 朴正熙 大統領은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⁷⁾을 國內·外에 전명하여, 南·北韓 同時國際聯合加入,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에게 門戶開放을 촉구함으로서, 對蘇·東歐圈 등 共產圈과의 交流등을 希望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韓國의 門戶開放政策의 표명이 있은 다음, 非政治的인 分野의 交流가 韓·蘇間에 若干 쏘트다가 1983年 9月 1日 大韓航空機擊墜事件으로⁽⁸⁾ 冷却된 후 1984年부터 非政治的인 分野의 交流가 再開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關係는 韓半島周邊의 四強인 美·蘇·中·日本 등과의 關係와 南·北韓間의 關係를 둘러싼 「파워·게임」(power games)의 展開餘波에 따라, 韓半島에 대한 蘇聯關係는 찾아볼 수 있다.

本稿는 東北亞細亞情勢를 檢討하고, 蘇聯의 亞細亞政策을 살펴며, 蘇聯의 韓半島政策을 北韓의 對南戰略方向이라는 맥락속에서 찾아보고, 今後의 韓·蘇關係를 展望하여 보고자 한다.

II. 東北亞細亞 情勢의 概觀

蘇聯은 美國의 極東戰略에 對應하고 「고르바초프」의 「全亞細亞安保會議」構想을 추진하는 데 있어 北韓地域의 蘇聯에게 絶對不可缺의 地政學的 要衝地이기 때문에, ① 對北韓軍事支援을 強化, 對蘇密着을 誘導하면서, ② 駐韓美軍撤收를 促進시키는 등 蘇聯의 極東戰略代行效果高揚을 위해 온갖 政策手段을 動員할 것으로 보인다.

(4) David J. Dallin, *Soviet Foreign Policy After Stalin*, Greenwood Press, Publishers, Westport, 1960, pp. 60-61.

(5) 崔鍾植, 現代國際聯合論, 서울:博英社, 1983, pp. 408-411.

(6)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Organs Relating to Korea, 1947~6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1963, p. 15.

崔鍾植, 上揭書, p. 397.

(7) 동아일보, 1973年 6月 23日, 한국일보, 1973年 6月 24日.

(8) *Asian Security 1984*,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Tokyo, 1984, p. 41.

中國은 對蘇關係改善 必要性을 認定하면서도 國家現代化 推進에 美·日 등의 協力이 必須의이기 때문에 對美·日協力關係를 對蘇關係改善보다 重視하는 가운데 ① 圓滑한 對美·日協力關係의 維持發展을 위해 韓半島情勢의 安定을 圖謀하고, ② 基本적으로 北韓의 權益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大前提下에서 美·日의 對北韓關係改善 仲裁와 함께 對韓關係改善도追求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日本의 軍事費 分擔과 對蘇牽制次元에서의 對中國協力を誘導하여 北韓地域의 蘇聯 軍事基盤地化를 遏止하고 東北亞에서 蘇聯을 孤立시키려 할 것이다.

日本은 國際的으로 美國·中國·蘇聯과 對等한 政治大國化를 指向하면서, ① 아세아諸國들이 日本軍國主義復活에 대한 危懼心을 解消코자 努力함과 同時에 ② 對韓既存關係를 별도로 北韓과의 實質關係蓄積을 통해 南·北韓을 居中調停할 수 있는 位置를 確保코자 할 것이다.

北韓은 80年代 後半期가 金正日新體制의 磐石을 다지는 時期로서 權力基盤의 強化와 새로운 指導者像定立이 要求되고 있어, 黨·政·軍部를 中心으로 한 體制保衛에 注力하고 經濟의 活性化를 위해 對外經濟開放의 擴大가 切實히 要求되며, 軍事的으로는 四大軍事路線⁽⁹⁾ 및 對南軍事優位政策을 계속 추구, 韓·美·日安保協力強化와 韓國軍現代化 추진계획에 대처하여 現在의 對蘇軍事協力を 더욱 적극화하면서 蘇聯의 極東戰略과 北韓의 對南戰略의 有機的 結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또한 北韓은 第3世界에 形成된 金日成權威를 金正日에게로 轉移시키는데 注力하면서, 後繼體制에 대한 周邊四強의 事實上 認定을誘導해 나갈 것이며, 非同盟圈에서의 對韓 優位堅持와 韓國의 友邦에 대한 侵透努力를倍加해 나갈 것이다, 또한 過去의 對南强硬一邊倒政策을 基調로 하면서 表面上으로는 그 어느때 보다 果敢한 平和攻勢로서 戰術變化를 驅使하는一方, 美·日의 對韓一邊倒政策의 修正에 主眼을 두고, 對美接近의 轉機를 마련하고 公共적으로는 韓半島로부터 美軍事力撤收를 實現시키는데 總力を 傾注시키며 緊張緩和분위기를 活用하여 對北韓接近을 유도, 外交關係를 發展시키며, 國際的으로 南韓을 孤立시키는데 總力を 기울일 것으로 展望된다.

III. 蘇聯의 亞細亞政策

1980年代에 있어서 美·蘇間에는 새로운 冷戰이 爽타가고 있으며, 西方陣營間에는 蘇聯의挑戰에 대처하기 위한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

蘇聯은 世界的인 野心을 가진 하나의 勢力이다. 蘇聯의 前外相(안드레·그로미코)(最高會

(9) 1972年 採擇된 것으로, ① 全地域의 優先化, ② 全住民의 武裝化, ③ 全軍의 幹部化, ④ 軍裝備의 現代化.

(10) Donald S. Zagoria,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82, p. ..

議幹部會議 議長：國家元首）（Andrei Gromyko）는 “世界問題에 있어서 蘇聯의 參與 없이 解決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誓明한 바 있다。⁽¹⁰⁾ 蘇聯의 軍事力은 過去 十數年間 계속 飛騰하여 왔다. 蘇聯은 現在 美國과 對等한 軍事力を 保有하게 되었으며, 어떤 部門에서는 美國 보다 優位의 이르는 面도 있게 되었다. 蘇聯은 아세아, 아프리카 및 中東 등 여러나라와 相互友好條約을 체결하고 있다.

蘇聯의 野望은 높아가고 있다. 아세아·太平洋地域을 포함한 世界의 여러 地域에서 蘇聯은 既存 劢力均衡狀態가 그들에게 有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 地域에 대한 그들의 影響力과 勢力を 增加시키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蘇聯의 아세아戰略은 그의 大「유리시아」戰略의 一部이다. 그것은 「그로벌」(global)에는 「유럽」戰略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으나,一面 아세아의 地政學的 與件을 기초로 하여 獨自의 發展過程을 밟고 있다.

第2次世界大戰後 蘇聯이 “아세아國家”的 主張을 公然히 내세운 것은 1964年「알제」에서 的 아세아·「아프리카」首腦會議—「알제」의 政變으로 流產一가企圖되었을當時였다. 蘇聯은 또 최근 “太平洋國家”로서의 發言權도 主張하기 시작하였다.⁽¹¹⁾

蘇聯의 아세아 國家로서의 主張에는 正當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2,240萬平方「키로메터」의 蘇聯領土 속의 75「퍼센트」는 아세아에 있고, 오늘날 2億 7,600萬의 蘇聯人口中 (84年末現在) 約 5:1의 1은 아세아系이고, 아세아系人口는 「스라브」 및 「바르트」族보다 빠른 速度로 增加하고 있다. 蘇聯의 “아세아國家”的 主張이 오늘날 蘇聯周邊의 아세아諸國民 사이에 심각한 矛盾을 이르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스크바」가 그 主張을 주로하여 이地域에 着實히 增大하고 있는 軍事力を 背景으로 떨어부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經濟的 혹은 政治的「모델」로서는, 蘇聯은 이들 諸國에 있어 刺戟的인 것도 아니고 또 魅力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의 壓倒的으로 強大한 軍事力만이, 이들 諸國民 사이에 두려운 感을 주는 政治的 效果—대개 消極的인 것을 이르키고 있다.

蘇聯의 아세아 戰略은 1970年代를 통하여 “아세아 集團安全保障”制度라는 形態를 취한 것으로 發展하여 왔다. 蘇聯의 “아세아 集團安保體制” 구상이 처음으로 公式 제기된 것은 1969年 6月의 世界共產黨大會(모스크바, 75個黨參加)에 있어서였다. 「브레즈네프」書記長은 同會議에 之의 演說(6月 7日)중에 아세아 集團安保體制의 創設을 提唱하는 同時に 「毛集團」은 蘇聯에 對해 通常 및 核戰爭을 準備하고 있다고 非難하였다.⁽¹²⁾ 그直後の 「모스크바」放送 (6月 18日)은 아세아 安保구성에 관하여, 「인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이 公開적으로 中東에서 日本에 이르는 여러 國家를 包含하는 體制의 中核을 形成하는 것이

(11) 1976年 4月, 第3回「아세아의 平和 日・蘇專門家會議」(京都)에 있어서 世界經濟國際問題研究所(IMI:MO)所長 故 N. 이노케 무세프博士의 發言,

三好 龍, “ソ連のアジア戰略序説”, 京都産業大學論集, 第14卷, 第2號(1985. 3), p. 54.

(12) 소련의 아세아 集團安保體制의.

기대된다고 報道하여, 「모스크바」의 遠大한 野心을 시사하였다.⁽¹³⁾

그러나 이 蘇聯提案은 그 후의 아세아諸國으로 부터 그리 熱情的으로 受容되지는 않았다. 첫째로, 同構想의 内容이 精密化되지 않고 애매한 形態로 提案되므로, 地域諸國間에 廣範한 疑念이 일어났다. 여기서 「모스크바」는 戰術을 轉換하고, 友好關係에 있는 아세아諸國과의 계약은 基本的으로 同內容의 條約을 雙務的으로 체결하고, 그것을 이어 붙여서 事實上의 集團安保制度의 形成을 指向하는 政策으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모스크바」는 1971年 蘇聯·埃及間 友好協力條約 및 蘇·印度間 平和友好條約를 시작으로 「이라크」(72年), 「소마리아」(74年), 「앙고라」(76年), 「모잠비크」(77年), 「베트남」, 「아프카니스탄」, 「에치오피아」(各78年), 「예멘」(79年), 「시리아」(81年), 北「예멘」(84年)의 諸國과 거의 同內容의 條約을 체결하고 있다.

이 過程에서 蘇聯의 集團安保條約網은 當初의 “아세아” 地域을 넘어 “검은 아프리카”(앙고라, 모잠비크)에 까지 擴大되어, 蘇聯의 戰略에 “유러시아·아프리카”的 性格을 주고 있다. 그 외에 埃及(76年)과 「소말리아」(77年)는 어느 나라도一方의 으로 條約을 破棄하고 있다.

이외에, 印度·「방글라데시」友好條約(71年), 「베트남」·「라오스」友好協力條約(74年), 「베트남」·「캄보디아」平和友好協力條約(79)은 어느것도 蘇聯이 主張한 同盟國인 印度 및 「베트남」의 隣接小國에 대한 保護的立場을 規定한 것으로, 蘇聯의 集團安保條約網의 下部 구조를 形成하고 있다. 蘇聯의 「그로발」인 友好條約網의 中核은 「와르샤와」(Warsaw)條約諸國 및 蒙古·「큐바」를 포함한 「社會主義共同體」諸國이다.

이리하여 70年代~80年初를 통하여 「와르샤와」條約을 中核으로 하여, 「모스크바」의 「유러시아·아프리카」에 이르는 集團安保組織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着實히 擴大하여 왔다.⁽¹⁴⁾

1975年以來, 아세아·아프리카 地域에서 7個 親蘇共產黨이 執權하기에 이르렀다. (베트남, 라오스, 앙고라, 에치오피아, 아프카니스탄, 南예멘 및 캄보디아) 이들地域에서 共產主義者가 각각 勝利를 하게 된 것은 각 事例마다 複雜하며, 여러가지 土着勢力과 蘇聯의 操縱에 의한 것이며, 蘇聯인이 각 事件에 있어서 能動的인 役割을 하였다. 蘇聯은 傍觀者가 아니었다. 더욱이, 1979년 「아프카니스탄」을支配하는 共產主義者가 土着反共主義者에 의한 威脅을 받자, 蘇聯軍을 直接 投入 侵攻하여 反軍과 武力 충돌을 계속하고 있다.⁽¹⁵⁾

結局, 蘇聯은 世界를 통하여 보다 큰 政治的 影響力を 미치기 위한 그들 軍事力의 增加를

(13) 三好修, 上揭論文, p.55.

(14) *Ibid.*, p.56.

(15) 1980年 1月 12일 「프라우다」의 「인터뷰」中에서 『브레즈네프』書記長은 外國反動勢力의 策謀는, 「아프카니스탄」의 獨立을 해치고, 蘇聯南部國境 가까이에 帝國主義의 前線基地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야기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은 1978年の 蘇聯·「아프카니스탄」友好善隣協力條約에 의하여 蘇聯의 支援을 要請하여 왔다』고 聲明하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 아세아 太平洋地域에서 蘇聯은 그들의 力과 影響力を 增加시키기 위한 刺戟의인 여리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로, 「모스크바」의 主된 競爭者인 美國은 南北아세아에서 影響力 있는 友邦과의 聯合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 그 聯合은 日本으로부터 濱洲에 이르고 있다. 蘇聯은 美國의 同盟體制에 對抗하기 위해, 그들에게 友好的인 國家들을 反對聯合體制로 發展시키려고 力하고 있다. 둘째로, 「모스크바」는 中國을 包圍하고 中國의 弱化를 力하는 力을 追求하고 있다. 中國이 強大國이 된다면, 將次蘇聯에 있어서는 가장 危險한 對抗者가 될 것이다. 蘇聯은 中國을 가까운 將來까지는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려운 것은 中國이 將次 工業化가 成功되어, 西方에 의해 武裝되고 西方側에 緊密하게 기울어지는 것이다. 셋째로, 日本은 蘇聯을 능가하는 世界에서 第2의 經濟大國으로서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日本이 軍事大國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 美·日間의 軍事的 紐帶強化와 日·中關係의 增大에 관하여 두려워 하여, 이러한 關係의 離間을 피하는 것에 主眼點을 두고 있다.

東南 아세아에 있어서 蘇聯은 새로운 印度支那共產國家(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공고한 團結을 力하면서, 東南亞國家聯合(ASEAN)諸國에 대한 美國과 中國의 影響力を 弱化시키는 同時에, 이들 諸國이 反蘇 太平洋聯合에 加入하지 않도록 저지함에 있다.

마지막으로, 蘇聯은 그들의 海軍 및 海洋勢力を 東 및 西아세아, 西太平洋, 南支那海 및 印度洋에 增加시킬 意向을 갖고 있다. 그들은 過去 數年間 그들의 太平洋艦隊를 增強시켜 왔으며, 베트남의 港口에 定期的으로 接近할 수 있게 되므로서, 「모스크바」의 海軍力은 아세아의 海路를 크게 擴大시켜 그들 力을 張창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¹⁶⁾

이렇게 되므로서, 蘇聯은 強力한 刺戟劑와 第3世界에 대한 影響力を 張창시키기 위한 機會를 많이 갖게 되고, 여러가지 軍事的인 手段을 구사하여 그들의 目標를 成就하기에 이르렀다.

1980年代이 접어들어 東아세아는 世界의 다른 發展途上國地域과는 달리, 比較的 安定되고 親西方의 力均衡下에 놓여있다. 「베트남」·「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除外하고, 이들 地域의 大部分의 國家는 西方側과의 同盟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日本은 駐日美軍의 維持費에 관한 財政支援을 增加시키고, 美·日·濱 등 合同海軍艦隊訓練에 參加하고, 美軍과의 共同軍事訓練을 하기에 이르렀고, 美·日安保條約도 日本의 廣範圍한 與論의 支持를 받고 있다. 中國도 美國과는 새로운 戰略的 및 經濟的인 親交關係가增進되어, 西方과의 準同盟關係로서, 蘇聯의 張창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韓國과 美國關係는 「카터」行政府의 잘못된 駐韓美軍撤收案은 「레이건」行政府의 登場으로, 韓·美間의 紐帶關係는 增大되어 撤軍案은 保留되어 있다. 臺灣에 대한 美國의 斷交 후에도

(16) *Soviet Military Power 1985*,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85, pp. 7-3.

臺灣은 經済的으로나 軍事적으로 安定되고 있다.

東南亞에 있어서도 비율변내에 있는 美國의 航空基地 및 海軍基地는 그대로 美軍이 使用하고 있으나, 東南亞國家聯合 등도 美國 혹은 다른 西方國家의 武器補給에 依存하고 있으며, 濟洲 및 「뉴질랜드」도 美國과 協定(ANZUS Pact)下에 있다. (核艦寄港問題는 異見을 갖고 있다)

理念的으로 親蘇「맑스」勢力이 東아세아에서는 受勢에 놓여 있지만, 그 势力의 增加를 폐하고 있나. 土着共產主義勢力 및 「맑스」勢力은 東아세아에서는 第2次世界大戰以來 오늘 날까지 比較的 그 前보나 減少되고 있다. 日本社會黨도 1970年代를 통하여 選舉에서 人氣가 低下되고 있다. 毛澤東의 死亡 후 새로운 指導層은 經濟開發을 위한 實用主義에 의해, 資本主義의 方法을 많이 採用하여, 蘇聯式「모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印尼, 泰國 및 馬來에 있어서도 從前보다도 共產主義勢力이 弱化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이 東아세아의 比較的 安定된 親西方의in 戰略環境속에서, 蘇聯은 太平洋地域내에 海・空軍等을大幅增强시키고는 있으나 政治의in 影響力으로 軍事力を 變形시키지는 못하고 있다.⁽¹⁷⁾ 親西方의in 戰略의 要素는 ① 共產國家間의 새로운 冷戰, ② 中國의 劇的인 西方側偏向, ③ 日本의 漸進적인 再武裝, ④ 美國의 順應期(漂流)의 終熄, ⑤ 東南亞國家聯合의 發展, ⑥ 韓半島서의 無勝負(南北韓現狀維持), ⑦ 地域내의 경이적인 經濟成長은 새로운 아세아・太平洋貿易共同體로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¹⁸⁾

이와같이 諸要素가 配慮된다면, 蘇聯의 입장에서 아세아・太平洋地域에서의 軍事的 地域的 團結力, 社會經濟的 彈力性 등을 소련이 野望을 失敗시키고, 相殺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障碍要素의 組合을 고려할 때 蘇聯의 1980年代를 통한 東아세아에 대한 接近策은 蘇聯勢力を 張창시키고자 하는 冒險의in 势力과 野望의 추구보다는 現狀維持政策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오히려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이 地域에 대한 蘇聯의 利益은 基本的으로는 保守의in 것이다. 「모스크바」의 主된 目標는 이 地域내에 反蘇聯合體制의 形成을 防止하는 것이다.⁽¹⁹⁾

1970年代는 一般的으로 東아세아에서의 蘇聯政策의 심각한 失敗라고 할 수 있다. 그 失敗에 대한 主要한例外는 「베트남」을 自己側에 회유하였다는 것으로, 蘇聯은 그 곳에 空軍 및 海軍基地를 確保하고 太平洋 및 印度洋에 그들의 張창하는 軍事力を 投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하면, 두가지 主要한 蘇聯의 努力은, 그 하나가 中國을 包圍하여 弱化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東아세아의 美國同盟體制의 弱化를 폐하는 것이었으나, 모두 失敗에 이른 것이다. 中國은 美・日과 接近하여, 西紀 2000年까지의 近代化 計劃을 着實히 推進하여 中

(17) Zaïaria, *Soviet Policy in East Asia*, op. cit., p. 4.

(18) Ibi l., p. 5.

(19) Ibi l., p. 15.

國의 國力은 顯著히 增加되어가고 있어, 蘇聯에 抵抗할 수 있는 能力を 갖게 되었다. 美國은 東아서아에 있어서, 이제 처음으로 中國과 日本 두나라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選擇할 必要가 없어 되었다. 두 나라는 美國과 모두 友好關係에 있다. 反對로 蘇聯은 東아시아 諸國과의 關係에서一般的으로 貧弱하다.

東아세아에서 蘇聯의 政治的인 失敗에 대한 두가지 主要理由는, 첫째로 蘇聯의 軍事的增强과 軍事的手段에 의한 弹창은 東아세아의 모든 非共產主義國家와 中國을 包含하여 實質적으로 느슨한 反蘇聯合體制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와 같은 配慮는 美國과의 「대탕트」를 破壞하게 이르렀고 亦是 東아세아諸國과 蘇聯과의 關係를 惡化시키기에 이르렀다. 둘째로, 東아시아 自體의 條件下에서는 다른 世界의 不安定 地域보다 蘇聯의 業績을 쌓을 機會가 더욱 적다는 것이다.

1970年代의 東아세아에 대한 「모스크바」의 失敗는, 1980年代를 통하여 이 地域에 있어서 蘇聯이 挽回할 것인가의 與否에 대한 問題가 제기된다. 이에는 다섯가지 可能한 「씨나리오」가 있다. ① 이 地域내의 不安定 이용, ② 「모스크바」에 有利한 軍事均衡으로 將次 變化시키는 것, ③ 美國과 中國, 日本 또는 東南亞國家聯合과의 關係의 解體, ④ 蘇聯이 日本과의 關係에서 敵陣突破를 하는 경우, ⑤ 蘇聯과 中國과의 成功的인 和解를 가져오는 問題등을 생각할 수 있다. ⁽²⁰⁾

結局, 1980年代를 통하여 아세아에서 蘇聯은 세력을 만회할 수 있는 여러가지 代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蘇聯이 바라는 대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이러한 蘇聯의豫測할 수 있는 「씨나리오」에 대처하여 美國이 賢明하게 이 地域에 대한 美國政策을 사용함으로서 解決할 수 있을 것이다. ⁽²¹⁾

IV. 蘇聯의 韓半島 政策

韓半島내의 基本的인 蘇聯의 利害關係는 蘇聯의 國境에 접하고 있는 半島의 地理的인 位置에서 일어나는 戰略的인 價值面에 있다. 蘇聯은 늘 自國의 國境에 접하고 있는 隣接國에 友好的인 政府가樹立되어 있는 것을 바래왔던 것이 事實이다. 韓半島가 非友好的인 國家로 넘어간다면 蘇聯의 「브라디보스톡」(Vladivostok)에 있는 太平洋艦隊基地에 심각한 威脅을 갖게 될 것이다. ⁽²²⁾ 蘇聯이 恒常 바라고 있는 不凍港도, 友好的인 政府가 隣接國

(20) *Ibid.* p. 21. Geoffrey Jukes, *The Soviet Union in Asia*, Augus and Robertson, Sydney, 1973, p. 78.

(21) William T. Tow and William R. Feeney, eds., *U.S. Foreign Policy and Asian-Pacific Security: A Transregional Approach*, Westview Press, Boulder, 1982, pp. 17-54.

(22)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Vol. 8, U.S. Government Office, Washington, D.C., 1971, p. 653.

美·蘇共同委員會 蘇聯側 首席代表 「스티코프」中將(T.F. Shtikov)은 1946年 3月 20日, 同委開

에 서면, 蘇聯은 그것을 使用할 수 있게 되어 戰略的인 見地에서 價值가 있을 것이다.⁽²³⁾

領土가 적고 分斷된 韓半島는 蘇聯에 있어서 政策上 日本보다는 그 重要성이 적다. 蘇聯과의 接壤距離는 不過 11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韩半島가 地政學的인 見地에서 蘇聯의 南進政策, 日本의 大陸進出의 陸橋의in 次元에서 中·蘇關係속에 韩半島의 北半部인 北韓을 어느側이 懷柔하는가는 戰略的 價值面에서의 重要성이 增加되어가고 있다. 즉 ① 韩半島에 友好的인 政府가 樹立되지 않으면 안된다. 蘇聯攻擊을 위한 潛在基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② 分斷된 韩半島가 蘇聯目的에 有利하다고 보고 있다. ③ 韩半島에 서의 새로운 紛爭을 바라지 않고, 美國과의 正面對決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蘇聯은 中國은 1961年 北韓과 相互友好援助條約을 각각 締結하고 있다. 蘇聯은 北韓에 對한 武器와 軍事技術 및 機械·工業設備의 主要한 供給源이고, 北韓의 防衛產業의 建設을 支持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動亂 以後, 「모스크바」는 北韓에 대해 「베트남」과 「시리아」에 供與하고 있는 新銳武器의 供給에는 消極的인 態度를 취해왔다.

蘇聯은 駐韓美軍이 存在하는 限, 北韓의 南進政策에는 成功의 可望이 희박하다고 判斷하여 스스로의 意志에 反하여 새로운 韓國動亂에 휩쓸리는 것을 翼 驚戒하고 있다.

全體로서의 蘇聯의 아세아 戰略에 있어서 北韓의 位置는 그리 높은 것은 아니고, 北韓에 대한 態度는 오히려 冷淡하기도 하였다. 왜나하면, 金日成의 北韓은 強한 自主獨立路線을 堅持하고, 蒙古와 「큐바」와 같은 忠實한 同盟國으로서 蘇聯外交의 손발로서의 役割을 拒否하여 有る 때문이다. 또 平壤은 「큐바」危機와 「베트남」의 「캄보디아」侵略을 들러싸고, 中國과 同樣으로 「모스크바」에 批判的인 立場을 취하였다. 北韓은 또 共產圈相互經濟援助會議(COMECON)에도 加盟하지 않고 「베트남」과 蒙古와 다른 立場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中蘇間의 中立을 維持하려는 北韓의 配慮를 反映하고 있다. 北韓은 또 非同盟의 立場에서 領土內에 中·蘇 어느側에도 軍事基地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蘇聯은 北韓과의 1958年 議定書에 의해 北韓의 國境에 가까운 羅南港 東南아세아로 부터의 貿易仲繼港으로 使用하는 것이 認定되어 있다. 同港에서 荷役된 貨物은 鐵道로 「브라디보스톡크」에 輸送되고 있다.⁽²⁴⁾

北韓과 東獨은 서로 共產圈에 속하는 分斷國家이나, 兩者的 相異는 北韓이 競合하고 있

註解에서 「蘇聯은 韓國에 重要的 利害關係를 갖고 있으며, 韓國이 참된 民主的 獨立國家로서 蘇聯에 友好的인 國家가 成立되어야, 將次 蘇聯을 攻擊하는 基地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다. 「스티코프」는 率直하게 同委美國代表인 「하치」中將(John R. Hadge)에게 「蘇聯은 蘇聯에 “忠實한”(loyal) 政府를 바라는 것」임을 밝히었다. (Carl Berger, *The Korea Kno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57, p. 69)

(23) Ralph N. Clough, "The Soviet Union and the Two Koreas," in Zagoria ed., *Soviet Union in East Asia*, op. cit., p. 175.

(24) 三好修, ソ連のアジア戰略序説, 京都産業大學論集, 第14卷第2號, 1985年3月, pp. 72-73.

는 中·蘇兩頭體制下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金日成은 때로는 北京에 기울리고, 때로는 「모스크바」에 기울리는 姿勢를 취하는 등, 「호네커」보다 꽤 큰 行動의 自由를 亨有하였다. 그 때문에, 「모스크바」는 때때로 金日成의 행태에 대한 불신으로서, 北韓內에서의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에 대해서도, 또 子息인 金正日에 의한 指導世襲의 움직임에도 留保的인 態度를 취해왔으며, 이에 대한 北京의 보다 寬大한 妥協的인 態度와 對照的이다. ⁽²⁵⁾

1978年까지 北韓은 蘇聯에서와 같이 中國으로부터 石油를 얻을 수가 있었으며, 다른 分野에서의 援助도 中國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다. 北韓은 外債의 償還問題에 逢看하였으나, 「모스크바」는 그들의 前의 保護者(protege)로서의 保證을 하지 않았다. 1970年代 中葉 蘇聯은 韓國과는 非政治的인 文化 및 「스포츠」등에 관한行事에는 韓國人の 入國을 許容하여 왔으며, 韓半島에 관한 解決은 長期的인 眼目에 시의 獨逸方式의 變形이었다. 이期間 蘇聯은 金日成의 統一政策을 北京이 친양한 것과는 달리 支持하는 것에 관하여沈默을 지켰다. ⁽²⁶⁾

美·中國의 國交正常화에 따라, 美蘇關係의 惡化는 北韓에 대한 影響力を 미치는 中·蘇間의 競爭關係에 變化를 갖어왔다. 北韓은 中國의 政策變化에 달갑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蘇聯은 東北아세아에서의 統一戰線을 形成하는 努力으로 平壤에 대한 初期의 政策을 유연화하여 强力한 刺戟을 주어, 지금까지 金日成에게 留保한 態度에도 不拘하고 새로운 關係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1979年 여름 北韓勞動黨 代表團인 政治局員 金永南에 의해 引率된 訪蘇團은 蘇聯共產黨과의 相互 協調增進에 合意하였다. 蘇·北韓間의 貿易과 科學·文化交流도 增大되었다. 蘇聯은 金日成 統一政策에 대하여도 热心히 支持를 表明하기에 이르렀다. 1981年 開催된 蘇聯共產黨 第26次 全黨大會에서 「브레즈네프」書記長은 北韓의 外勢介入 없는 統一政策의 支持를 천명한 바 있다. ⁽²⁷⁾ 中國도 北韓에 대해 逆攻勢로 나와, 北韓과의 高位級指導者와의 相互交流를 시도하여, 北韓은 中·蘇隣接兩側 共產大國과의 關係의 强力한 求愛로부터 恵澤을 보게 되었으나 그 結果가 明白하지는 않다.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立場은 大韓民國政府에 대해 攻擊的인 立場을 취해왔다. 「모스크바」는 “韓國政府가 軍事, 「파시스트」徒黨”이라고 汚名을 퍼부었다. ⁽²⁸⁾

1984年初 以來,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環境에 注目할 變化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變化에 의 「이니시티브」를 취한 것은 中國이었다. 中國은 4大近代化를 추진하는 必要에서 韓半島에 있어서 平和維持와 戰爭抑止를 至上命令으로 생각하고 있다. 北京은 84年 3月 以來

(25) Robert A. Scalapino,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U.S.S.R. in Asia," Zagorid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op. cit., pp. 67-68.

(26) Ibid., p. 69.

(27) *Current Soviet Policies*, III,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1981, Columbus, p. 6.

(28) Scalapino, op. cit., p. 81.

韓國과 「스포츠」交流 및 第3國을 媒介로 하는 韓國과의 貿易을 주진하는一方, 北韓에 대하여는 式力에 의한 南北統一政策의 危險性을 說得, 오히려 經濟近代化의 추진이 北韓의 立場을 強化하는 길이라는 것을 強調하여왔다. 이에 대하여 北韓은 ① 1983年 10月 「광군태로」事件: 以來의 國際的 孤立에서의 脫却과 ② 심각한 經濟停滯打破의 必要에 조를리게 되어, 84년 9月에 合營法을 採擇하여 中國「모델」을 參考로 하여 經濟的 門戶開放에의 第一步를 밟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北韓이 “南”에 대한 好戰的인 姿勢를 유지하는限, 西方側工業諸國에서의 經濟的 支援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리하여, 北韓은 84년 9月末 韓國에 대한 水害救護物資의 供與를 契機として 하여,同年 11일의 南·北韓經濟會談의 開始를 시작하였다. 84년 1月 政治面에서는 南·北韓 및 美國과의 三者會談을 提案하였다. 이 提案은 北京에서 強力한 支持를 받고 있다. 胡耀邦黨總書記는 최근 이 三者會談案을前提로 하여 「韓半島의 平和維持에 中·美·日 3國이 協力하여야 된다」고 提案하고 있다.⁽²⁹⁾ 이러한 三者會談 提案은 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撤收를前提로 하고 있다고 韓國側은 反對하고 南·北韓 當事國間의 直接會談을 主張하고 있다.⁽³⁰⁾

이러한 韓半島의 새로운 움직임은 蘇聯을 미묘한 立場에 처하게 하였다. 1984年 5月 金日成의 17年만의 「모스크바」訪問에서 「콘스탄틴·체르넨코」黨書記長은 歡迎만찬사에서, ① 南韓에서의 美軍撤退와 ② 平和的 民主的인 韓國再統一이 蘇聯의 基本政策이라는 것을 再確認하였다. 또 同書記長은 現存의 休戰協定에 대신하는 平和條約을 調印하는 것과, 南·北韓間의 不可侵宣言의 채택, 相互兵力削減, 韓半島의 非核地帶化 등에 대한 北韓의 「아니시아티브」에 對한 蘇聯의 支持를 明確히 하였다.⁽³¹⁾ 同書記長의 인사는 北韓의 “三者會談” 提案에 尊하여는 言及하고 있지 않으나, 「타스」通信은 同提案에 대한 蘇聯의 支持를明白히 하고 있라고 指摘하였다. 그러나 이 「타스」通信은 「립프 서비스」(lip service)에 불과할 것이다.

三者會談이건, 四者會談(南·北韓·美·中)이던 蘇聯이 關與하지 않는 韓國問題의 解決方式에 對해 蘇聯이 熱意를 가질 理由는 없다. 그러나 同時に 蘇聯은 한층 北韓을 北京陣營으로 吸入하는 것과 같은 것은 得策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체르넨코」書記長(當時 은 上記의 金日成 환영사에서 「와싱턴·東京·서울間의 3國同盟 結成의 試圖」 및 「日本軍國主義의 復活과 強化를 阻止하는 美國의 方針」을 크게 非難하였다. 그러나 金日成

(29) 譜賣新聞, 1984年 9月 6日.

小林讀賣新聞社長과의 會見時 胡總書記가 言明한 것임.

(30) 三者會談에 관한 韓國側立場.

東亞日報 1984년 1月 11日

國土統一院長官은 對北聲明을 통해 “韓半島의 統一은 우리 民族內部問題이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韓北間에 對話를 갖고相互理解와 信賴를 회복하는 努力이 重要함”을 강조하였다.

(31) 1984年 5月 23日 「모스크바」서의 北韓勞動者國家代表 환영만찬회서 「체르넨코」書記長의 演說.

이 이에 同調하였다는 記錄은 發表되어 있지 않다. 同年 5月의 蘇·北韓首腦會談의 共同聲明이 發表되지 않았던 것은, 北韓이 經濟近代化政策을 추진하기 위해, 蘇聯의 立場에 同調하여, 美·日兩國을 刺撃하는 것을 꺼렸던 점이 아닌가 한다. 또 1970年代를 통하여 北韓은 점차 「도스크바」보다 北京에의 接近政策을 強化하여 왔으나, 北韓이 中國「모델」의 經濟近代化에 나선것은 蘇聯으로부터 빚어나는 傾向을 一段 보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蘇系도 中國만큼 露骨的인 것은 아니나, 近年 「스포츠」·文化·學術 등 非政治的인 分野에서 韓國과의 접촉을 強化하고 있다. 蘇聯은 北韓의 韓國統一構想 및 두個의 韓國의 國際聯合加人 反對의 立場에 대하여는 입으로의 支持를 주고 있으나, 蘇聯의 考慮된 選擇이 “두個의 獨逸”과 同樣으로 “두個의 韓國”的 現狀維持에 있다는 것은 疑心할 나위가 없다. 또 北韓이 北京陣營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強하게 보인다면, 蘇聯은 韓國과의 接近의 움직임을 加速하는 것으로, 이것은 北韓에 대한 奉制行動으로 나올지도 모른다. 여하간에 中·蘇兩國에 있어서 韓國과의 接近을 增加시키고 있는 것은 北韓의 中·蘇에 대한 兩等距離政策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傾向이 더욱 强하게 되면, 交叉承認 즉 自由諸國의 北韓承認과 대신 中·蘇의 韓國承認의 움직임이 더 한층 强하게 作用하게 될지 모른다. 이點 88年の 서울「올림픽」에 대한 蘇聯의 參加與否의 立場이 注目된다. 中國은 이미 서울 五輪에의 參加姿勢를 보이고 있다. 85年 9月 世界柔道大會 10月 洋弓大會 등에 蘇聯代表團의 大舉 서울 大會에의 參加한 事實은 88서울「올림픽」에 蘇聯등 共產國家의 參加可能性에 대한 밝은 展望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³²⁾

V. 蘇體新政權의 對外戰略的 意味

「고르바초프」의 登場은 強力한 蘇聯을 意識하고 있는 젊은 世代의 登場을 意味하고, 今後 보다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對外戰略의追求가 豫想된다. 基本的인 對西方關係는 伸縮性을 誇示하고, 他紛爭地域에서의 緊張造成 및 支援活動을 隱密히追求하는 것이 豫想된다.

蘇聯은 아시아 地域에서의 有利한 情勢變化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評價하고 ① 힘의 投射를 包含한 積極的인 政策을 모색하는 極東軍事力의 確保(戰略核의 3分의 1, 地上軍의 4분의 1, 海軍의 4분의 1)에 의한 美·蘇 軍事力 均衡의 變化⁽³³⁾, ② 中國과의 軍事對決可能性的 減少와 最小限의 接觸 및 交流의 增大, ③ 日本과의 交流維持 및 日本의 本格的 再軍備의 沮止, ④ 印支半島의 共產化와 反「베트남」勢力의 實質的 逐出의 成功(캄보디아의 例), ⑤ 北韓의 E·國密着 沮止와 對蘇關係改善의 積極摸索 등이다.

(32) 讀賣新聞, 85年 8月 3日. 蘇聯, 五輪參加通告, 蘇聯黨國際部長이 表明.

조선일보, 1985년 9월 21일.

한국일보, 1985년 9월 21일.

(33) Soviet Military Power, 1985, op. cit., p. 15.

그러나 다음과 같은 不利한 狀況도 展開되고 있다고 評價하고 있다. ① 美國의 아세아地域에 대한 海·空軍中心의 配備戰力強化努力, ② 中國의 對美接近과 本格的인 蘇聯과의 對話進展이 微弱, ③ 日本의 反蘇性向과 對蘇防衛力의 減增, ④ 「베트남」의 「캄보디아」侵攻에 의한 東南亞國家聯合諸國의 警戒意識增大, ⑤ 韓國의 安定 및 持續的인 經濟·軍事力의 強化 등을 들 수 있다.

蘇聯이 對아세아 政策方向은 다른 地域에 비하여 沈滯되어 있다고 評價, 增大하여지고 있는 同地域의 政治·經濟的 比重 등을 考慮하여, 從前보다 적극적인 政策을 추구하는 것으로 展望된다. 蘇聯의 强·穩政策의 混合에 의한 戰略은 큰 變化의 모색보다 이 地域의 狀況展開를 能動的으로 捕捉·活用하는 機會主義의 膨脹政策의 性格을 띠고 있다.

1. 蘇聯의 韓半島에 대한 基本的 利益

共產主義의 領首國家로서의 立場에서 1984년 10월 12일 이래 北韓과의 軍事同盟關係 및 地政學의 連擊性에 의해 韓半島를 重要視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戰略的 考慮에 의해 韓半島를 보다 重要視하고 있다. ① 中·蘇對立을勘案할 때, 中國과 北韓의 密着性은 蘇聯에 不利하고, 蘇聯의 北韓掌握은 中國의 心臟部에 대한 壓力加重을 可能하게 한다. ② 韓半島의 掌握은 增強하는 蘇聯極東 海·空軍의 太平洋進出을 決定的으로 容易하게 할 것이다. ③ 韓國의 共產化는 日本의 「핀란드」(Finland)化誘導를 위한 壓力加重을 可能하게 한다. ④ 韓半島는 蘇聯極東의 重要施設에 대한 攻擊과 太平洋艦隊의 太平洋進出을 封鎖하는 西方의 軍事基地로 使用된다.

2. 蘇聯의 對北韓密着關係의 擡頭

蘇聯이 韓半島에서 美國보다 優位한 立場에 서려는 手段의 하나로 北韓에 대해 「미그」23機를 提供하는 등 침근을 피하고 있다고 日本外務省이 分析하였다. 蘇聯·北韓間의 接近은 그 배경에는 蘇聯의 對美戰略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日本外務省은 이와 같은 蘇聯의 韓半島進出에 대하여 日本뿐만 아니라, 韓國, 美國, 中國은 경계심을 強化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蘇聯·北韓接近은 ① 蘇聯·北韓間의 貿易擴大에서 볼 수 있다. 蘇聯·北韓, 中國·北韓間貿易의 보면, 1978年까지는 中國·北韓貿易이 上廻했다. 그러나 그 이후 順位가 逆轉, 1984년에는 蘇聯·北韓間貿易이 約 9億 9百萬「달러」, 中國·北韓間 貿易은 5億 2,800萬「달러」, 蘇聯·北韓間貿易高는 金額에서 中國·北韓間의 貿易量의 2倍가까이 앞지르고 있다. ② 人的交流의 擴大面에서, 北韓側으로 부터는 1984年 5月에 金日成이 117年만에 蘇聯을 公式訪問했고, 1985年 3月에도 「체르넨코」장례식에 首相 姜成山을 團長으로 한 黨·政府代表團이 蘇聯을 訪問했다. 蘇聯側으로부터 1984年 11月 「카피차」蘇聯外務次官이 北韓을 訪問, 金日成·金正日 등과 會談했다. ③ 「미그」23기 제공, 1985年 5月 蘇聯이 北韓에 「미그」23기를 供給했다는 것은 日本外務省에서도 確認했다. 최종적으로 공급될 대수는

北韓의 主要輸出國別 輸出額 (단위 : 100萬弗)

북한의 총수출액	주요수입국	연도	1980		1981	1982	1983
				1,441			1,490
	蘇聯	412	29%			550	37%
	中國	276	19			320	21
	日本	180	12			126	8

出處：國土統一院資料

北韓의 主要輸入國에 대한 輸入額 (단위 : 100萬弗)

북한의 총수입액	주요수입국	연도	1980		1981	1982	1983
				1,738			1,670
	蘇聯	417	24%			480	29%
	中國(共)	282	16			279	17
	日本	374	22			327	20

出處：國土統一院資料

北韓의 主要貿易國에 대한 貿易額(輸出+輸入) (단위 : 100萬弗)

무역총액	연도	1980		1981	1982	1983	
			3,179			3,160	
	蘇聯	829	26%			1,030	33%
	中國	558	18			599	19
	日本	554	17			453	14

出處：國土統一院資料

50대 정도로 짐작된다. 특히 「미그」 23기는 蘇聯共產黨書記長 「고르바초프」의 決斷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³⁴⁾

특히 中國이 1985年 北韓의 八·一五解放 40周年 記念에 蘇聯과 달리 代表團을 파견하지 않은 事實은 北韓의 中·蘇等距離外交와 관련, 주목되고 있다.

蘇聯은 이전 解放 40周年에 「알리에프」 政治局員겸 제 1 부수상과 「체트로프」 제 1 國防次官을 團長으로 하는 軍事代表團, 「야사코프」 太平洋艦隊 第 1 부사령관이 이끄는 3隻의 艦艇을 파견했다

이와달리 中國은 人民日報가 「우리형제인 北韓人民에게 解放기념일을 맞아 열렬한 祝意를 보낸다」는 내용의 아주 평범한 축하논평을 실는데 그쳤다.

이는 85년 봄부터 눈에 띠게 強化되고 있는 北韓과 蘇聯과의 軍事的協力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韓國과 中國間의 최근의 움직임을 떠올려 中國과 北韓關係가 후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34) 조선일보, 1985年 7月 23日.

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 보다는 「고르바초프」政權이 들어선 후, 極東에서의 蘇聯의 적극 외교와 中國의 對韓國關係를 견제하고 韓國에 대한 立場을 強化하려는 北韓의 計算이 때맞추어 어울린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蘇聯은 韓半島문제에 관련한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時代에는 中國보다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었다. 이에 따라 北韓과 蘇聯關係보다는 中國과 北韓關係가 더 밀착되어 있는데, 北韓・中國, 北韓・蘇聯間의 關係가 蘇聯에서 北韓으로 불기 시작한 「軍事 바람」속으로 휩싸였다는 것이다.

蘇聯의 對北韓접근은 韓國・美國・日本 등 3角協力體制에 맞서, 北韓을 품안에 끌어넣으려는 「고르바초프」의 戰略的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의 차手段으로 들고 나온 것이 北韓이 가장 필요로 하는 「軍事協力」이다. 이는 85년 봄부터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미그」 23기의 北韓제공, 양측 空軍의 상호방문과 함께 平壤에서 거행된 蘇聯군 대대가 나는 해방40周年기념 군사「페레이드」에서 충분히 살필 수 있다는 지지이다.

이와같은 蘇聯과 北韓의 軍事的 접근을 中國이 달갑게 여기지 않으리라는 의견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 中國이 항상 蘇聯軍事力의 아시아進出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中國이 美國・日本 등과 軍事的交流를 強化하고 있는 것도 蘇聯의 進出에 대비한다는 뜻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³⁵⁾ 또한 蘇聯艦隊가 北韓의 元山港에 '登港'⁽³⁶⁾하는가 하면, 南浦港에 대하여도 基地化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³⁷⁾

이러한 움직임은 北韓의 中・蘇等距離方式 變更의 前兆로서 北韓의 「미그」 23기 配備는 意義가 크며, 蘇聯의 積極的介入이, 南・北韓對話의 뒤에서 軍事力增強을 위해 再開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³⁸⁾

蘇聯은 최근 北韓에 「미그」 23기 10臺를 추가제공, 北韓은 現在 26대의 「미그」 23기를 보유하게 되다고 日本 產經신문이 보도하고 있다.⁽³⁹⁾ 이같은 속도로 「미그」 23기가 北韓에 공급되면, 당초에 상했던 대로 北韓은 85年内에 50대 정도의 「미그」 23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產經紙는 전했다. 北韓과 蘇聯이 蘇聯機의 北韓上空通過, 北韓에의 신형전투기 供與 등을 포함한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했음이 틀림없다고 分析하고 있다고 產經紙는 보도하고 있다.

(35) 朝國일보, 1985년 8월 17일.

朝賣新聞, 1985年 8月 16日, 蘇聯色 짙은 軍事「페레이드」.

(36) 朝國일보, 1985年 8月 13日. 동아일보, 1985年 8月 12日. 조선일보, 1985年 8月 13日.

夏郷신문, 1985年 8月 12日.

(37) 朝鮮일보, 1985年 8月 25日.

朝鮮신문, 1985年 8月 26日 社說 “蘇聯의 南浦港進出”.

(38) 小谷豪治郎, 世界日報, 1985年 8月 20日.

(39) 朝・아일보, 1985년 10월 7일.

北韓은 労動黨創黨 40周年(85年 10月 10日) 記念行事에 中國을 초청하지 않았으며, 이는 北韓과 中國사이에 적지 않은 變化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85年 10月 7日 読賣新聞〔北京發〕 기사에서 밝히었다.⁽⁴⁰⁾

中國共產黨의 對外連絡部 대변인은 지난 10月 5日 記者會見에서 北韓은 오는 25일 中國의 北韓派兵 35周年을 記念하는 行事에는 黨과 政府代表團이 초청을 받아 北韓을 방문한다고 밝혔으나 北韓이 해마다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 「勞動黨創黨 40周年記念日」行使에 대해서는 「열리히 축하한다」고만 言及, 초청받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蘇聯이 北韓의 労動黨創黨記念日行事에 초청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重要한 行事에 中國이 초청되지 않은 것은 北韓이 中國보다 蘇聯과의 關係強化를 더 重要視하고 있는 結果라고 추측되고 있다.

北韓은 지난 85年 8月 15日 解放40周年記念行事때는 蘇聯의 「알리에프」 제 1 부수상등 대규모 대표단을 초대했으며 中國측은 초대되지 않았다.

中國은 당시 主席級을 團長으로 하는 代表團을 준비했다가 초청받지 못했던 것으로 北京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⁴¹⁾

北韓과 蘇聯과의 관계는 「미그」 23기 전투기 공여와 蘇聯軍艦의 北韓寄港, 外相 金永南의 訪蘇 등으로 급속히 밀착되고 있다.

또한 1986年 2月 26日 北韓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蘇聯共產黨 第27次黨大會에 金正日을 團長으로 하는 代表團을 파견하는 등 北韓을 둘러싼 中國 및 蘇聯사이에 줄다리기 外交가 치열해지고 있어 韓半島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日本 外務省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蘇聯의 對北韓 접근정책은 ① 美國의 太平洋 戰略에 對抗하고, ② 北韓의 重要性에 착안한 때로인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金正日이 86年初 蘇聯을 방문할때, 「고르바초프」書記長과의 會談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실상 蘇聯이 金日成—金正日父子의 세습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⁴²⁾

이와같은 北韓·蘇聯間의 軍事密月에 대하여 北京은 허탈상태로 있는데, 특히 蘇聯비행기의 北韓航空通行權 확보의 波長은 최신 「미그」 23機 제공에 대한 代價로, 中國의 內陸을偵察당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⁴³⁾

(40) 중앙日보, 1985년 10월 8일, 동아일보, 1985년 10월 7일.

(41) 중앙日보, 1985년 8월 26일, 中·蘇, 北韓에 치열한 外交공세.

胡耀邦 10월 北韓訪問, 金正日, 내년 2월 訪蘇.

한편, 1985년 10월 16일자 서울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東京특파원)들에 의하면 최근의 蘇聯과 北韓의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는 때에, 北韓은 85年 10月 25일 「中共軍 韓國동란참전 35주년 기념식」에 부수상 李鵬(정치국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黨·정부대표단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北韓이 對中·蘇 관계를 둘러싸고 어떤 조정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42) 한국日보, 1985년 8月 27日, 조선일보, 1985年 8月 27日.

(43) 동아일보(香港發), 1985年 9月 27日.

「고르바초프」蘇聯共產黨書記長은 85년 9월 16일 「사회주의 국가는 서울 올림픽에 대해 공동보존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고르바초프」書記長은 이날 「크레모린」서 가진 日本社會黨 石橋委員長과의 會見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최근 그가 제안한 아세아 安保會議의 취지의 골격은 ① 蘇聯·中國 및 그 밖에 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 세아에서 核을 先制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⑩ 아세아에서 軍事活動을凍結하며, ⑪ 非核保有國이 非核을 약속할 경우 核保有國은 그 나라에 核을 使用하지 않으며, ⑫ 일부 國家에 核擴散의 危險이 있으므로 이러한 나라가 核擴散防止條約에 서명하도록 하고, ⑬ 아세아·太平洋·印度洋地域에서의 核實驗을 금지하여, ⑭ 아세아·太平洋諸國이 宇宙軍事化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聲明을 發表하고, ⑮ 새로운 軍事「블럭」을 만들지 않도록 기존「블럭」을 해체하며, ⑯ 2國間의 회의와 결정에 병행 多國家間의 會議와 決定도 추진하는데 目的을 둔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⁴⁾

이러한 蘇聯의 움직임은 「고르바초프」가 아세아外交에 本格的으로 臨하여, 美國의 아세아에서의 影響力에 對抗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蘇聯이 值重하여 다루고 있는 것은 對中國關係改善이다. 85年 10月初 北京에서 第7次中·蘇外務部官會議가 開催되어, 80年 期限滿了와 함께 中國이 폐기한 中·蘇友好同盟相互援助條約에 대신하는 條約的인 기초위에서 새로운 中·蘇關係를 두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中·蘇關係改善의 움직임은 「고르바초프」新政權下에서 姚依林 副首相(이번 中央政治局員으로 升格)의 訪蘇(85年 7月)에 의한 長期貿易協定의 체결을 비롯하여, 經濟, 文化協力의 面에서 顯著한 進展을 보이고 있다. 人事交流의 面에서도 「아르바토프」美·캐나다 研究所長(中央委員)의 訪中이 85年 10月로 豫定되어 있다.

「고르바초프」政權下에서 또 하나 눈에 띠는 것은 北韓과의 關係의 緊密화이다. 「미그」 23 기의 大量供給이라는 대담한 軍事的인 支援으로 北韓을 蘇聯側으로 끌어들여 中國과 거의 等距離로 세우는데 成功하였다고 評價되고 있다(西方側 外交소식통).

이와 같이 「고르바초프」政權이 아세아에 作用을 強化하는 背景에는, 우선 蘇聯의 世界戰略 속에, 아세아·太平洋地域에 있는 日本의 影響力を 無視할 수 없다는 認識이 「크레모린」內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逆으로, 對中關係改善, 北韓과의 關係強化는 從來 蘇聯이 強한 影響力を 保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關係와 더불어 日本의 對蘇改善을 促進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라는 보고 것이다.

「고르바초프」政權이 「아세아 安保構想」을 들고 나와 積極化를 꾀하는 것은 「美·日太平洋協力」에 對한 強한 경제수단의 하나로 보인다.

「크레모린」에 있어서 아세아 外交上問題는 남아 있다. 가령, 中·蘇關係改善에 있어서도 中國側이 있어서는 經濟近代化를 위해 日本을 비롯한 西方側諸國과의 協力이 不可缺이라는

(44) 朝國日報, (東京發) 1985年 9月 18日.

「國內의 事」이 있고, 蘇聯側이 바라는 것만큼 關係를 깊게 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北韓이 親蘇로 轉向한다고 하여도, 中國과의 地理的, 歷史的 關係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⁴⁵⁾

그러나 北韓이 解放40周年 記念行使에 이어 10月 10日 勞動黨創黨 40周年記念行使에 中國을 招請하지 않은 것은 최근 北韓의 危機打開戰略으로 택하고 있는 극단적인 「中・蘇간 출타기 外交」의 일환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즉 비록 制限된 範圍나마 中國의 對韓接近에 불만을 갖고 對蘇傾斜자세를 보여온 北韓은 상정적인 의미가 큰 記念行事를 이용, 中國에 대한 압력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되고 있다.

蘇聯・北韓間의 軍事協力의 增大는 「고르바초프」의 對美 적극 대응전략과 北韓의 실리적 계산이 합치한 結果다. 「고르바초프」登場후의 蘇聯은 韓・美・日의 3角協力體制에 맞서 北韓을 極東戰略의 한 軸으로 끌어들여 對美교란 전략의 고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蘇聯의 極東戰略에 편승, 오랫동안 좌절됐던 「미그」 23기 등 최신武器회득 기도를 실현시켜 軍事力を 增强하는 한편, 최대의 당면 과제인 金正日 후계 체제에 대한 宗主國 蘇聯의 승인을 얻으려 하고 있다.

北韓의 對蘇傾斜는 不得已한 對中國關係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北韓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낙후된 경제개선 및 金正日 후계 체제확립등의 난제를 안고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과도기에 있는 北韓에 ① 韓・美・日 3國協力체제의 강화와 ② 美・日・中 3角체제의 구축은 심각한 시기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北韓은 中國의 對韓經濟・文化交流의 증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中國이 北韓에 대해서 개방을 촉구하면서, 어뢰정사건의 직접 협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對韓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北韓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内外的 「딜레머」를 타개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으로 對蘇傾斜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北韓이 蘇聯勢를 끌어들이는 것은 南韓과의 外交・軍事的 대결에 있어 中國의 정책이나 영향력으로 보아 對蘇의존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北韓은 앞으로도 당분간 中國의 변화, 특히 對韓 접근에 쇄기를 박기위한 對蘇傾斜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믿어진다. 최근 北韓정무원 부총리 鄭浚基가 對外개발과 관련 「中國은 中國이고, 北韓은 北韓」이라는 표현으로 체제고수방침을 천명한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⁴⁶⁾

「조지・부시」 美副統領은 85年 10月 13일부터 6일간 中國公式 방문에 앞서 10月 8日 記者會見에서 「中國은 韓半島 평화에 큰관심」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蘇聯의 新銳「미그」 23기 北韓제공에 대해 中國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韓半島문제에 관한 中國指導者들과의 協議를 가질 것을 밝혔다. ⁽⁴⁷⁾

(45) 讀賣新聞, 1985年 9月 26日.

“소련 占相의 訪日決定, 아시아外交에 本格 美의 影響力에의 對抗도”.

(46) 한국일보, 1985年 10月 10日.

(47) 중앙일보, 1985年 10月 9日. 동아일보, 1985年 10月 9日. 한국일보, 1985年 10月 10日.

이와같은 蘇聯·北韓間의 軍事的인 접근은 韓半島의 安保面에서 새로운 緊張을 가져올 수 있는 問題點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처하는 美國을 비롯한 韓·美·日 3國間의 協力체제와 美·日·中 3角協力體制의 전개과정이 注目되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문제는 南·北韓當事者國間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周邊 四強의 利害關係의 대립을 이하히 조정하는가에 달려있는 同時에 ·超强大國인 美·蘇 두나라가 여하히 平和定着을 위하妥協과 協調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美極東·太平洋擔當 國務次官補「월·포위츠스」가 35년 9月 12~13일 「모스크바」를 訪問, 韓半島 문제에 관하여 「카피차」外務次官과 實務의인 접촉을 갖고, ⁽⁴⁸⁾ 85년 11月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레이건」美國大統領과 「고르바초프」蘇聯黨書記長의 첫번째 頂上會談에서의 議題로서 論議될 韓半島 문제에 관한 사전탐색전을 한 바 있는 것을 보더라고, 美·蘇超大國의 입김이 韓半島문제 해결에 큰 關鍵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VII. 結語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들의 이해관계는 제 2 차 世界大戰 以來로 변화무쌍하게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韓半島가 地理적, 戰略적으로 共產國家들과 自由友邦들을 가르고 있는 교두보 선상에 있다는 점이다. 韓半島 自體가 獨立國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게 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온 이 强大國들은, 獨立한 이후 현재까지도 韓半島의 進路를 가로막고 노골적으로 政策에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에 있어서 外交政策은 이들 四強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은 범위에서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本論文은 四強의 하나로서 蘇聯이 韓半島에 어떠한 戰略으로 임하고 있으며, 韓半島의 두개 국가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政策的 樣相을 보이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사실상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이란 美國과의 協力均衡의 觀點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의 韓半島政策은 對北韓 政策을 통하여 그 真意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인접국가인 中華은 소련이 요리하기엔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政策의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中國에 비하여 北韓은 소련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어렵지 않게 다를 수 있는 상대이다. 그동안의 정책사례를 보아도 소련은 北韓에 「미그」23기 등 수많은 최신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北韓으로부터 北韓의 羅南港과 南浦港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北韓領空을 蘇聯機가 飛行할 수 있는 權리를 얻어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中國과 美國, 中國과 南韓으로 이어지는 東北亞의 추세는 北韓의 불

조선일보, 1985年 10月 10日.

(48) 한국일보, 1985年 9月 14日. 중앙일보, 1985年 9月 9日..

안감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하며, 北韓의 입장에서도 對蘇聯政策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北韓에서 있었던 몇개의 거국적 행사에 中國代表團을 초청하지 않았었던 사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北韓과 蘇聯의 관계는 그동안 눈에 띠게 經濟交流, 人的交流 등이 빈번해지고 밀착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결코 종래의 경향과 특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련이 共產陣營의 宗主國으로서, 北韓을 美國을 中心으로한 自由陣營에 대하여 대치하기 위한 발판으로 굳히려는 意圖는 이미 40년전부터 一貫된 政策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蘇聯이 美國과 對峙하려는 意圖를 버리지 않는 한 소련은 北韓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것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소련의立場은 北韓의 立場에서는 1962년에 言明한 4大軍事路線의 확충을 위한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한편 南韓과 蘇聯과의 관계는 1984년부터 非政治적인 分野 즉 「스포츠」 및 학술·문화분야에서 交流가 잦아지는 듯 하다. 소련의 이러한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그동안의 東亞細亞에 대한 그들:의 強硬政策이 오히려 이 지역에서 對蘇聯合勢力を 强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蘇聯은 1980년대를 통하여, 1970년대의 東아시아에서의 失敗를 만회하려고 전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蘇聯의 이러한 태도는 北韓의 中·蘇兩國에 대한 等距離外交政策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소련은 南韓과의 관계를 北韓의 態度를牽制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北韓의 태도는 中國과의 地理的 歷史的 關係를 생각할 때, 소련의 입장에서 불투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美·蘇·中·日·南·北韓間에 빚어지는 關係의 蔓藤·變化·改善過程은 그核心이 自國의 利益의 확보에 있는 만큼, 韓半島는 그 문제의 當事者 및 主體로서 周邊四強의 利害關係의 對立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과 더 나아가 統一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課題를 안고 있으며, 이를 여하히 賢明하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民族의 力量을 試驗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